

21세기 어항어촌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

어항-어촌은 단순한 모습그대로의 어항-어촌이 아니다. 국민이 바다와 접하고 해양지향적 사고를 키우는 공간이다. 예술의 전당 못지 않은 문화공간이다. 한반도가 일류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해양지향적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황해와 동해를 세기의 해양질서-문화의 중심 축으로 하고 어촌-어항을 해양기능의 지원공간으로, 문화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혼이 있는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어업인의 가치관, 그것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적 투자 그리고 개발의 추진이 이루어질 때, 새 천년은 가장 아름다운 어항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

.....

류 청 로 / 부경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어항·어촌의 과거와 현재를 개괄하고 미래의 꿈을 그려보자. 특히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환경친화형 개발로의 발상 전환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냉엄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 천년에는 새로운 틀로 짜여진 건강한 어항·어촌의 모습으로 부상해야 할 것이다. 그 새 어촌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새 어항의 꿈-비전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야 하는가?

정답이 없는 미래의 이야기

다. 그러나 목표가 있어야 달성을 위한 전략이 세워질 수 있다. 그 목표의 질과 성격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어느 것이 올바른 목표인가?

그 목표가 바로 서고 난 후에야 그 추진전략의 효율성이 의미를 갖는다. 추진전략의 체계화에는 관련된 사회 경제 문화적 제반 방법론적 합리성과 기술적 과제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고난의 세기를 떨치면서 맞이하는 어항-어촌의 21세기, 진정한 해양문화의 발상지이자 계승지로서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제시하고, 그 꿈의 실천 전략을 그려본다. 해역공간 이용-개발의 새로운 조류(뉴-패러다임)는 무엇이며, 그에 걸맞는 어항-어촌 개발의 비전은 무엇인가?

해역 및 어항·어촌 공간 이용의 패러다임 변화

해역 및 어항·어촌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해역 이용 개발의 역사 속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시기가 있다. 한 패러다임의 말기에는 결정적 절망감에 빠지거나 새 패러다임의 수용을 놓고 일어나는 마찰이 심화되기 마련이었다. 과학분야에서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일 때와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해야 할 때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해역의 이용과 관련한 혁명적 개념변화의 시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거시적으로 단계를 지워 그 이용패턴의 중요한 변화를 정리해 보고, 미래의 이용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유추해 보기로 하자.

- 1) 원시사회의 수렵, 바다를 활동공간으로 한 교류단계
- 2) 대항해 시대, 해적시대, 고래의 자원화시대(기름, 뼈 등)
- 3) 원양어업, 자유항행시대, 석유자원 및 해양자원개발 시대
- 4) 수산자원관리시대, 연안국의 국토화 및 수역 확대시대, 제약적 자유항행, 해역 환경관리시대

이들 변천 과정에서 많은 관련 산업과 도시의 흥망이 엿갈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의 위기는 새로운 형태로 극복되고, 바다의 이용밀

도와 중요도는 각기 다른 형태로 높아져만 왔다. 그리고 그만큼의 마찰이 증대되고 있으며, 갖가지 형태의 국가간 또는 국제 협약 등에 의한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 이면의 내용은 접어두고, 앞으로의 바다에서는 더욱 고도의 쟁탈전이 다양한 형태로 얽혀져 복잡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아직도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은 유효하며, 미래에도 유효하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그 형태가 한 세기 전의 해군력 중심의 사고에서 다양한 해양 이용력의 패턴으로 변형되었을 뿐이다.

한편 이러한 거시적 해양이용 패턴 변화와 연관적으로 대 표되는 어항-어촌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곳의 이용 패러다임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전술한 시대구분에 대응하는 어항-어촌의 이용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 원시 수렵형 어업, 어촌의 거점
- 2) 정착형 어선어업과 어항, 어촌의 형성
- 3) 어항·어촌의 개발과 어항의 전성기, 연근해 어업, 원양

중앙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 뿐이다.
그렇게 국가의 구석구석,
어촌 어항이
그 기능을 다할 때
국가도 건강하게
활력을 찾을 것이고,
그 활력이 또한
독도를 우리편으로
꺼안 수 있을 것이다.
동해의
수산-어업, 어항, 어촌을
이상적으로
개발-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동해의
고도 독도를
우리 것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어업

4) 정주권의 상실, 원양어업의 쇠퇴와 어업구조의 변화, 어항-어촌-어장구조의 변화, 연안역의 산업기지화와 연안습지의 상실, 어장환경의 악화 및 해양환경의 악화

어업 양상의 변화와 관련된 어촌-어항의 시대적 변화, 공업화 및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저감 및 고령화 추세, 젊은 후계자의 격감, 어장환경의 악화라는 악재가 거듭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확충과 습지 및 어장환경의 재생과 창조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 발생을 극복하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기본 개념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방법대로 개념의 변화 없이 추진하면 되는 것인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개념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1) 어장, 어항, 어촌 문화의 창달을 지원하는 기간 시설로서의 어항 및 주변 시설의 정비

2)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1차 산업으로서의 어업에서, 청정 환경산업으로의 변신을 위한 기술적 지원시

스템의 개발과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성의 건강식량과 신물질 자원의 보고로서 그 생산과 연구개발 기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산업의 거점화

3) 해양지향형 신 환경정보 산업화 및 문화·교육 공간의 정주 교류형 이상형 촌락으로의 변신: 정보통신망의 확충에 의한 이상촌을 구현한다. 벽지, 오지, 문화, 교육 문제에 의해 떠날 수밖에 없는 어촌의 모습에서 환경, 정보, 문화, 교육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어장-어항-어촌-대도시 연계체계의 구축에 의한 재택근무의 최적지로 활용되는 청정 환경 위락·휴양형 산업체계화로 기술시대 21세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국토의 생태환경적 이용, 개발, 관리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연계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전쟁과 화해의 시대

21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쟁의 시대인가, 화해의 시대인가? 어찌되었든 새로운 탈 냉전시대 이후의 경쟁체제가 정립되어 갈 것이며, 해양의 분할 작업이 끊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가 우주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가치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해양을 대상으로 한 마찰은 늘어만 간다. 신 국제해양질서를 유지할 국제적 해양법의 적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서는 이 복잡해지는 해양질서 속에서 어떻게 주변국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해역 분할 논쟁을 슬기롭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기도 하다. 특히 일본과는 조그마한 국경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나, 저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한 분쟁의 씨앗은 남아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을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힘의 논리나 국토의 논리보다는 해양질서의 논리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아래 풀어야 할 것이다. 바다를 분할하여 관리하고, 이용하는 문제는 이제까지의 국토를 이용 관리하는 문제와는 사뭇 그 의미가 다르다. 이제까지의 국토개발의 독자적 추진에서 나타난 온갖 지구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양의 경우는 훨씬 긴밀한 연속체적 성질을 가지고 반응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분할을 하여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통제하는 방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공멸의 결과밖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어업과 직결되는 해양 환경과 수산자원의 관리문제를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지속적인 이용개발과 환경 및 수산자원의 보전 문제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독도를 근거로 하여 누가 더 잘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는가 그 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면서 우리 것이라 주장할 해양적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해의 주인으로서 동해를 주제로 한 어업, 어촌, 어항의 개발 전략을 심도 있게 생각해 가야 할 것이다. 그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동해의 해양적 생리를 잘 알고, 수산자원의 특징을 잘 활용하며, 내륙도시와의 연계성이 뛰어난 거점 해양 문화공간의 창조가 필요하다. 그 목표의 설정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가장 해양적인 사고의 사람과 그곳에 사는 사람.

바다를
양식장으로 만든다거나,
목장화 한다거나 하는
발상에 앞서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환경의
바다로 관리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조성과 이용은
건강한 인간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 건강한 식량에 의한
건강한 인간이
건강한 산업과 문화를
성장시킨다는 데
이견을 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곳을 무대로 뛰는 사람들이 그 곳이 중심이 된 연계체계를 구상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모든 길은 서울로, 모든 지역은 서울을 위한 위성 공간으로, 모든 어항은 서울로 향한 수산물의 공급원으로서라는 발상은 떠나야 한다. 지역을 위해 서울이 존재하는 서울은 서울로, 지역은 지역으로, 어촌과 어항은 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한 공간으로 이용 개발되는 목표를 누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절차와 방법은 누가 어떻게 마련해갈 것인가? 그 곳에 사는 사람이 항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중앙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 뿐이다. 그렇게 국가의 구석구석, 어촌 어항이 그 기능을 다할 때 국가도 건강하게 활력을 찾을 것이고, 그 활력이 또한 독도를 우리편으로 껴안을 수 있을 것이다. 동해의 수산-어업, 어항, 어촌을 이상적으로 개발-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동해의 고도 독도를 우리 것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사실 필자는 지난 11월 중

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 오끼노시마의 어항과 어촌 곳곳을 둘러보고, 그곳의 수산 관련 연구자, 어민, 향토사학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섬을 찾는 태공들의 모습과, 마을 곳곳의 삶의 모습이 어업과 어촌을 중심으로 잘 엮어져 있었다. 섬마다의 연락선과 본토와의 연락선 체제도 우리가 가지는 울릉도와 본토와의 관계나 울릉도 곳곳의 이용도에 비해 매우 높아 보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대로 바다의 논리로 이용된다면, 독도를 누가 더 잘 쓸 것인가? 말 할 것도 없이 이 오끼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바다를 이용하는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다.

생태환경적 공간기능의 극대화

(1) 기르는 어업의 본질 그리고 바다 목장화의 허상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이라는 슬로전 아래 수산업의 가치관이 많이 변천하였다. 그리고 이 기르는 어업은 양식어업으로 그리고 바다 목장화라는 어휘로 변형되어 왔다. 수산업 전문가들조차도 이 용어

의 혼돈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미래의 어업은 이들 말대로 기르는 어업 즉 양식어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라고 납득하려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의 양식업이 제길을 걷고 있는지. 내수면 양식에서 나타난 호수의 부영양화, 육상 양식업의 성업에 의한 각종 환경적 및 산업적 비효율성, 내만 양식업자의 밀식에 의한 폐사 및 병리적·생태 환경적 문제들, 그리고 그 환경의 변화가 양식장 환경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어장환경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수산자원 감소의 근원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간과한 양식 지상론 또는 양식을 전제로 한 바다 목장화는 허상이다. 이는 이미 알려진 남획이나, 육인성 환경오염에 의한 자원감소보다도 더욱 심각한 수산업의 만성적 패망을 자초할 사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육상의 각종 목축업에서 이미 나타났던 패해였다. 이를 바다에 옮겨 바다에서도 실패를 경험해 보자는 단순한 학습 효과를 한번 더 확인해 보자는 어리석은 정책적 절차이다.

감히 말하건대 어촌, 어업인이 아닌 일부 산업적 양식업자

의 일시적 일확천금의 사업이 아닌 건강한 바다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양식 또는 자원조성과 관리하에 어업인, 어촌의 번영을 생각하는 목장화구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어도 바다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바다에 다시 투자하는 양식 있는 해양문화적 소양을 전제로 한 양식업, 목장화사업 그리고 생태환경의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

(2) 건강한 바다, 건강한 인간, 건강한 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

바다를 양식장으로 만든다거나, 목장화 한다거나 하는 발상에 앞서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환경의 바다로 관리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조성과 이용은 건강한 인간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 건강한 식량에 의한 건강한 인간이 건강한 산업과 문화를 성장시킨다는 데 이견을 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양식수산물은 과연 종합적으로 건강한 수산물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를 기점으로 하는 어촌, 어항의 미래는 어떠하겠는가? 그리고 이를 식량으로 하는 인간, 도시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태적으로 건강한 자연 속의 바다와 인간 관계는 아니다. 우리는 이 인

간과 바다의 생태환경을 연계된 것으로 보아 연안 생태환경의 회복과 재생 그리고 창조를 통한 건강한 바다의 조성 과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생각해 가야 할 것이다. 이들의 거점으로 어촌-어항이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해변의 곳곳에 산재한 양식장에서 멋대로 생산하고 파는 양식산업이 오늘날 어촌, 어항을 황폐화하는 데 기여한 바 크다. 그리고 골목마다 산재한 횡집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횡집은 활성화되는 반면 어촌, 어항은 폐허화되는 기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파행적 양식산업이 기여한 바 크다. 건강한 바다, 건강한 인간, 건강한 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기능화를 위해 잘 계획된 도시가 인간의 편리성과 환경성을 모두 만족시키듯이 해역의 계획 또한 그래야 함이 당연하다. 수산물의 유통구조도 마찬가지이다.

새 천년의 어항·어촌

어항·어촌의 기능과 목표

(1) 어항-어촌의 모습 : 꿈

의 세계를 마음대로 그리고 합해보자

계획 수법중의 첫 단계는 흔히 공동체 구성원의 꿈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려보는 것이다. 인생의 꿈을 그리며 일생을 사는 인생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지역의 모두가 지역의 미래상을 꿈꾸며, 주변과의 조화, 주변과의 상존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가는 멋진 구상들이 마음대로 그려지고, 그리고 공동의 꿈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합해지는 계획이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 이때 어항, 어촌, 어업인의 꿈과 지혜가 모아지며, 그들의 꿈에 더욱 더 원대한 이상을 갖게 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와 현실적 대안을 찾아내는 기술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2) 어항-어촌의 기능과 목표를 정리하자

동해의 주문진과 남해의 녹동항은 그 기능과 개발의 방향이 같을 수가 없다. 어선어업이 주인 어장·어항·어촌의 연계기능과 양식어업이 주축을 이루는 항·포구의 기능과 시설은 달라져야 한다. 또한 바다와 육지의 연결점이므로 토지 지향적 문화에 흡수 왜곡되지 않는 기능과 목표의 설정이 중

특히
 해양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양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주체인
 어항-어촌의
 주민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토의 다양한
 이용과 문화의 다양성을
 자랑하는 한반도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적 색상은
 군사력, 경제력의 시대를 지나
 문화력이 새 시대를
 지배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21세기 이상적
 국가상과도 걸맞은 발상이라라.

요하다. 바다와 육지기능을 연결하며, 꿈을 공유하는 청정환경산업 공간화를 통한 해양문화의 창달을 지원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새로운 꿈의 공간을 향한 실천전략

(1) 개발과 보전을 위한 투자방향의 고취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은 어떠한가? 꿈을 그려낸 어촌, 어업인, 어항의 관계자가 뛰어야 한다. 지역 자치체의 개발 또는 보전 계획에 반영되고, 국가적인 개발 및 보전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 및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주장하는 어항-어촌 개발에의 투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투자방향을 고취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이 해양에의 투자, 어항-어촌에의 투자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양의 중요성, 그리고 수산-어업의 중요성, 해양성 문화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2) 해양기능과 정주 지역

해양문화의 고양

정보-청정산업-환경·휴양공간 기능의 극대화를 새 천년의 어항-어촌의 과제로 삼는다면, 우선은 해역환경-어장-어항-생산-유통의 온라인화 및 정보화를 위한 투자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 해역의 어장 및 어항의 이용, 관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기술적 과제의 해결과 투자유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 국가가 이러한 해양기능 극대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지, 왜 해양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 기능을 연결하는 어항-어촌이 중요한 공간인지를 정책입안자들이 실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해양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양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주체인 어항-어촌의 주민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토의 다양한 이용과 문화의 다양성을 자랑하는 한반도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적 색상은 군사력, 경제력의 시대를 지나 문화력이 새 시대를 지배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21세기 이상적 국가상과도 걸맞은 발상이라라.


새 천년의 비전을 향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해양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그리고 국토와 해양의 점점기능으로서의 어항·어촌의 활성화는 해양지향적 문화의 성장으로 인접국 간의 해양이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역의 이용·관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며, 바다를 향한 개발의욕과 투자의욕은 그와 비례하여 증대될 것이다. 이는 곧 국력의 장기적 신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인류가 가지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21세기의 비전과 새 천년의 비전 속에서 어업의 비전, 어항의 비전 그리고 어촌의 비전을 구상하고 제시할 수 있는 해양인들의 연구와 토론과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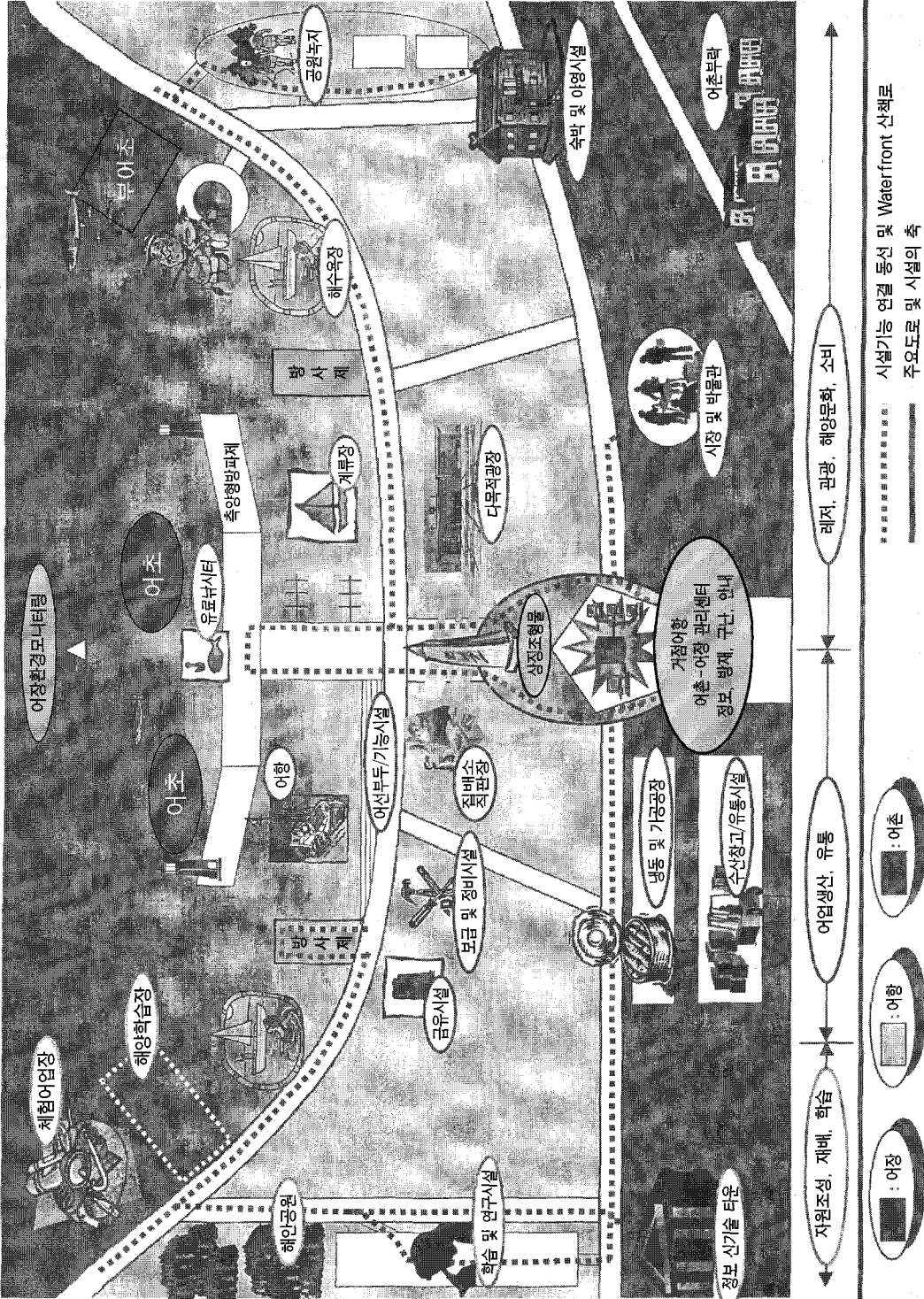
어항-어촌은 단순한 모습그대로의 어항-어촌이 아니다. 국민이 바다와 접하고 해양지향적 사고를 키우는 공간이다. 예술의 전당 못지 않은 문화공간이다. 한반도가 일류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해양지향적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황해와 동해를 세기의 해양질서-문화의 중심 축으로 하고 어촌-어항을 해양기능의 지원 공간으로, 문화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혼이 있는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어업인의 가치관, 그것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적 투자 그리고 개발의 추진이 이루어질 때, 새 천년은 가장 아름다운 어항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

새 천년의 비전을 위한 대화의 장, 21세기의 건강한 어항을 위한 토론의 장이 각 어항에서, 어촌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열기를 더하기를 기대한다. <그림>은 생태환경 친화형 청정환경산업-정보-기술산업 및 해양문화 공간 기능을 극대화한 21세기형 어느 어항-어촌의 모습을 그려본 것이다. 바다를 사랑하는 그리고 어촌-어항을 사랑하는 모두가 그리고 그려보면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때이다. 이는 곧 국가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자 바다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해양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그리고
국토와 해양의
점점기능으로서의
어항 어촌의 활성화는
해양지향적 문화의
성장으로 인접국 간의
해양이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역의 이용-관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며,
바다를 향한
개발의욕과 투자의욕은
그와 비례하여 증대될 것이다.
이는 곧 국력의 장기적 신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그림> 해양문화 기능을 극대화한 21세기형 어항-어촌-어장의 모습